

## 의옥(疑獄)의 서사화와 추리의 기법\*

—〈옥선몽〉을 중심으로—

서경희\*\*

〈차 례〉

1. 서론
2. 범죄 서사의 사건 해결 과정과 윤리 의식의 형상화 양상
3. 〈옥선몽〉에서 의옥을 다루는 방식
  - 1) 증거와 목격자의 전략 배치
  - 2) 사건의 반복 서술과 재해석의 가능성
  - 3) 제도적 절차에 따른 수사와 논리적 판결의 재현
4. 결론: 〈옥선몽〉 의옥 서사의 의의

### 〈국문초록〉

본고는 〈옥선몽〉의 의옥 서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해결 과정과 주제 의식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범죄 사건을 통해 운명의 응보나 윤리적 실천의 정당성을 드러냈다면, 〈옥선몽〉의 옥사 이야기에서는 사건의 해결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다뤘다. 범죄 증거들을 서사 곳곳에 배치하여 추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낭만적인 만남이 비극적 옥사로 비화하여 의외의 전개를 읽는 재미를 만들어냈다. 여러 관련자의 반복적 진술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용인하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했고 현실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풀어내면서 윤리적 판단은 개입시키지 않았다.

의옥 서사의 특성은 읽는 재미와 믿을 만한 이야기 전개를 중시하는 작가의 소설 인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작가의 전략이 독자의 감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평비를 통해 확인된다.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개인의 죽음, 예기치 못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한 상황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며 공동체의 문제의식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독서 과정이 사건을 추리하는 독자 개인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옥선몽>이 이뤄낸 소설 작법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1910년대 이후 추리소설의 번안이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 옥선몽, 범죄, 의욕, 추리, 개인, 독서 방식

## 1. 서론

범죄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했다. 중국 전통적인 이야기꾼들 사이에서 범죄는 청중들을 흥분시키는 주요 이야기거리였으며<sup>1)</sup> 우리의 소설에서도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는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로 많이 등장했다. 범죄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간에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원통한 한을 풀거나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범죄를 문제 삼고 그 내막을 드러낸다. 선악의 인물 구도가 분명한 소설에서는 애초에 누가 범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독자가 알 수 있다. 단 서사의 공간 속에서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기망당하거나 의혹을 풀지 못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이 어떻게 내막을 알게 되는지, 혹은 당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누명을 벗거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게 된다. 이 궁금증을 푸는 과정이 소설의 주된 서사를 이루며, 독자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에 몰입하고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 아로슬라브 프루세, 『도시: 통속소설의 요람』, 『이야기, 小説, Novel』, 김진곤 편역, 예문서원, 2001, 401~407쪽.

소설이라는 장르가 삶의 규범적 의미를 표현한다<sup>2)</sup>고 했을 때, 범죄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그 도덕적 가치 판단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은 관(官)의 주도로 처리되는데, 범죄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종종 논리적 비약이나 비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찾고 혐의를 발견하게 되며, 결국 선택한 자는 해원을 하고 악한 자, 즉 범인은 처절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중국의 공안(公案)류의 영향뿐 아니라 국내의 송사와 관련된 설화나 실사(實事)의 수용, 옥사(獄事)와 관련된 서적의 출간 등 내부적 요인을 바탕으로 성장한 송사소설로 분류되었고, 서구의 추리소설이 번안,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흥행한 본격적인 범죄, 추리소설의 전 단계로 이해되었다.<sup>3)</sup>

송사로 비화되는 범죄 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는 사건 자체를 다루는 방식보다는 그 이면에 놓인 현실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다. 송사를 다루는 소설이 신분 갈등이나 가족구성원 혹은 향촌사회의 계층 갈등, 권력의 횡포나 관습의 억압에 대한 저항과 극복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러한 현실 반영이 비판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했다. 이처럼 소설의 문면에 선명하게 부각되는 권선징악 외에도

2)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27쪽.

3) 조선시대 송사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현홍, 『韓國訟事小說研究』(三知院, 1997, 1~454쪽)가 대표적이다. 이후 박여범, 『송사소설의 전개 유형과 현실인식』(전북대 박사논문, 2001, 1~181쪽),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신구문화사, 2002, 1~304쪽) 박성태, 『조선 후기 송사소설의 유형과 전개양상 연구』(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1~202쪽)에서 사적 전개와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사소설의 범주에서 작품 각 편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었을 뿐 아니라, 이병직,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과 의미』(『한국문학논총』 62, 한국문화회, 2012, 63~90쪽), 장연호, 『朝鮮時代訟事小說의 判官 形象 研究』(『한국문학논총』 67, 한국문화회, 2014, 77~106쪽) 등 사건의 원인이나 인물의 이미지에 대한 검토들도 진행되었다.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작품들은 범죄 소재의 선정성을 윤리적 주제의식으로 중화하였다.

조선후기 소설 작가층이 확대되고 작법상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범죄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옥선몽(玉仙夢)>은 옥사의 성립 과정, 인물의 구도, 사건 형상화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경향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장회체 한문장편소설이다. <구운몽>의 서사에 익숙한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으나 <구운몽>의 자장 안에 있으면서도 작가가 본인의 소설관에 따라 새로운 소설의 미감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4)</sup> 특히 채릉의 자결로 옥사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한 장(章) 이상 주인공 전몽옥에게 쏠린 혐의를 푸는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몽옥이 꿈속에서 여러 여인들과 만나 인연을 맺는 에피소드 가운데 <구운몽>과 가장 차별화된다. 따라서 <옥선몽> 작가의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현실성을 구현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작가의 소설관이 작품 속에 실현되는 과정을 살피는 데 주력한 결과<sup>5)</sup> 범죄가 소설에 수용되는 양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나 송사소설, 혹은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해명에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송사 형식을 중심으로 검토한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수사 과정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지만<sup>6)</sup> 과학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4)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1~201쪽)과 전성운, 『19세기 장편 한문소설과 청말 재학소설의 지식 제시 방식』(『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395~412쪽) 참조.

5) 서경희(2004), 앞의 논문, 104~111쪽.

6) 박여범(2001), 앞의 논문, 75~77쪽. 이 논의에서 두채릉의 시비 금옥의 진술을 위증으로 해석하고 <옥선몽> 옥사 화소의 의의를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과 올바른 판관의 자세를 제시한 데서 찾았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금옥의 진술은 위증으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판관의 능력이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인 수사 방식과

서사 구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밝히기보다 해당 부분의 내용과 절차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옥선몽>에서 채릉의 죽음이 의옥(疑獄)으로 비화된 에피소드는 범죄, 특히 살인 사건을 다루는 고전소설의 흔한 문법과는 분명 다르게 진행된다. 소설에 손쉽게 채택되면서도 통속적인 윤리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범죄 화소가 색다른 상상력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은 범죄를 대하는 태도, 주제 의식, 더 나아가 소설 장르에 대한 인식 등에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옥선몽>에서 범죄의 의혹을 해명하는 서사는 송사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옥선몽>이라는 한문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1930년대 본격화된 추리소설의 연원을 짚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옥선몽> 이본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후 국도본)을 대상으로 의옥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이본 가운데 오기(誤記)나 문구 삭제가 비교적 적고 독자의 반응인 평비(評批)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옥선몽>의 의옥 서사가 지니는 변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기존 송사소설의 문제해결 방식과 주제 의식의 구체화 양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옥선몽>이 옥사를 서사화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옥선몽>에서 의옥의 형상화, 서사화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범죄 서사의 사건 해결 과정과 윤리 의식의 형상화 양상

<옥선몽>의 옥사 화소가 지니는 변별적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

---

의의에 대한 검토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전소설에서 범죄를 다루는 방식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살인 사건을 형상화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초자연적 세계를 상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다.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이운선전> 등의 작품들에서는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들이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사건의 실체를 인간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파악하게 된다. <장화홍련전>이나 <김인향전>은 원혼이 등장하여 신원하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운선전>에서도 혼령의 도움으로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잡는다.

츠시의 이운선이 형주의 도입하고 관속을 점구한 후의 옥수를 울여 궁문헌디 공필이 실패 울며 빅옥 무죄허거날 마지 못하여 호옥하고 그날 밤의 증각을 수쇄하고 스방의 황토을 폐고 호인을 물인 후의 〃 의관을 정제하고 향축을 잣춘 후의 단정이 과좌하고 안즈편이 밤이 집피 삼경이 되난난지라 호련 음풍이 〃 러나며 혼 여즈 목의 칼을 썩고 흰 기의 석삼 즈을 써서 손의 들고 외연이 들려와 외면하고 셋거날 즈스시 이러나 안즈 문왈 유명이 현수하고 남녀 유별허거날 무삼 원동흔 일이 잇건더 저려흔 형상으로 들어와 무어실 원코져 허난다 혼디 그 여귀 답왈 소여나 지금 옥중 김공필의 안희웁던이 제이비 만무 〃 죠호웁기로 그 곡절을 엇잡코져 들어온즉 놀니여 후 죽기도호웁고 후 관직도 호와 설원치 못허엇삽던이 이제 명부 좌전의 엇즈오이 설원허여 주읍소서 부 〃 난 인제 디운이라 무지흔 사람이라도 그 안희을 죽이지 안이허거던 호물며 손여 가장은 호즈라 부 〃 간이가 즈별홀 썩더러 금수곤충이라도 살싱을 안이흔 사람이웁겨날 엇지 안희을 죽기싸오릿가 소여의 분호고 원통흔 일을 발설호고져 호되 임의 쏘흔 들어온지라 말슴을 고치 못 호이 분명 생각지 못호웁거던 기을 보와(기을 보와) 저기호웁소서 호고 울고 나가겨날 즈스 송구허여 아무리 홀 줄을 모르고 잇다가 그 잇튼날 밤의 쏘흔 거려흔지라 즈사 황헌 디각허여 생각호되 그 여즈 빅기의 석삼즈을 써 들이신이 빅기삼이라 호는 놈이 죽이썩요 말을 호고즈 하나 이놈이 더럽다 호여신이 공필은 시되호고 집의 오지 안이하엇거날

괴삼이 공필의 음성을 모범하여 제복을 지어입고 아밤의 쪽기고 잠통히이라 그 박기 알 수 업다<sup>7)</sup>

김공필이 그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게 되자, 죽은 아내가 형주에 부임한 이운선에게 나타나 지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범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어서 문제해결을 돕는다. <왕제홍전>에서는 원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제홍이 무죄함을 증명하는 과정에 자사의 방문으로 날아든 버드나무 잎사귀 세 개와 자사 부부의 꿈에 나타나 제홍의 무죄를 알리는 노인의 언급이 주요 근거가 되어서 진범이 류삼엽임을 밝히게 된다. 이들 작품에서는 가해를 한 악한 인물과 피해를 입은 선한 인물의 정체가 분명하며 원혼이나 몽조(夢兆)로 등장하는 현실 외부의 힘이 악한 인물의 정체를 드러내서 징치한다. 인간계 밖에 온전한 질서가 존재하고 그 힘이 서사 세계에 개입하여 선악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설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옥낭자전>에서는 인간 외부의 개입 없이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지만 사건에 대한 판결에는 당사자들의 가해나 피해 여부와는 별개로 관련 인물의 도덕성이 참조된다. <옥낭자전>에서 옥낭자는 살인 혐의로 수감된 신랑 이시발을 대신하여 옥에 갇히고 남편을 내보내는데 이시발의 살인죄는 옥낭자의 열행으로 상쇄된다. 이시발과 영흥 토호와의 다툼에서 종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 갈등이 시작되지만 서사는 그 다툼의 과정이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 관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의 희생, 즉 윤리적 실천을 준거로 판결하여, 결국 영흥 토호의 죽음에 일정 책임이 있는 시발은 벼슬을 받고 옥낭자는 정렬부인 직첩을 받는다. <징세비태록>에서도 살인사건의 해

7) <李雲仙傳>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34장본, 58~60쪽.

결이 의외의 순간에 가능하게 된다. 간신 화신이 유배지에서 왕정윤의 딸을 강제로 취하려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죽이므로 왕정윤이 안대후·대순 형제에게 호소하여 원수를 갚아줄 것을 청한다. 이에 대후·대순 형제가 이를 임금에 고하지만 임금은 화신을 혈뜬는 것이라 여기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후가 왕정윤의 말을 다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왕정윤을 머물게 하고 즉시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자초지정을 아뢰었다 “신이 이전에 이 소문을 들었사운데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저하였사옵습니다. 사부가의 처자를 예가 아닌 것으로 범하는 것은 천자의 위세로도 감히 행치 못할 것인데 하물며 유배 중인 죄인의 몸으로 이런 행사를 하였으니 잠시라도 임금이 계시는 곳에 두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옵니다. …삼가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살피시어 화신을 빨리 처참하여 국법을 밝히소서.” 임금이 대후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화신의 권세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행세를 하였겠느냐? 네 아버지도 화신을 혈뜬더니 너희들도 온당하지 않은 무리가 퍼뜨린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것이다. …다시 이런 말을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온 가문을 죄인으로 삼아 죄를 물을 것이다.”<sup>8)</sup>

훗날 간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왕의 기상이 있던 심양왕 염이 왕위를 이은 뒤에야 화신은 열세 가지의 죄목으로 사약을 받는다. 화신이 죽은 뒤 왕정윤 여식의 혼령이 나타나 시신을 수습해 달라 청하는 것에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화신의 처벌로 신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징세비태록>, 『낙성비룡 문장풍류삼대록 징세비태록』, 임치균 외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37~338쪽.

하루는 안대후와 경몽필이 밝은 달빛에 왕정윤을 청하여 화신의 연꽃정자에 서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싸늘한 바람이 일어나며 한 미인이 목에 칼을 꽂고 두 팔이 묶인 채 연못 가운데에서 나오며 울면서 말하였다. “아버지 소녀의 시신을 거두어주십시오” 그리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으나 왕정윤이 바라보니 분명 자신의 딸이었다. 못가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다음 날 물을 퍼내니 과연 딸아이의 시신이기에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sup>9)</sup>

<징세비태록>에서 악인인 화신의 살인죄는 그 진상을 밝힐 필요없이 서술상 명백하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실상을 드러내 죄의 경중을 따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죄인이 처벌을 받았지만 왕정윤 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끝내 시신의 위치도 알지 못하여 원혼의 호소로 찾게 된다. 이 작품에서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정윤 여식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가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진 인물이 공을 거듭 세우며 권력에 다가갔는지, 혹은 절대 권력이 선한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보다 인물의 에토스나 권력의 속성이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서 죄인이 면죄부를 받기도, 악인의 생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 범죄사건을 다루는 소설에서 해안을 지닌 인물이 사건을 꿰뚫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정수경전>에서 정수경이 우승상 김공의 딸과 혼인한 첫날밤 김소저가 자객에게 살해되자 누명을 쓰게 되는데, 죄승상의 딸 이소저가 그 누명을 벗겨준다. 이소저는 의금부가 정수경을 7달 동안 가두고 문초를 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며 재상가의 여식임에도 직접 금부에 나가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소

9) <징세비태록>, 388쪽.

저는 정수경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자체나 목격자의 증언 혹은 증거에 주목하기보다 타고난 예지력이나神通력을 활용한다.

소제 가로디 시비더러 네 당상계 기셔 주인의 표적을 차자 달나 햐여 가지고 도라오라 햐시거늘 시비...바다 가지고 도라와셔 소제기 드리오니 소제 바다 보기를 다 햐되 다문 동희의 디나무을 거러쓰믈 보고 디회햐여 이윅키 보고 생각 햐여 급피 시비를 명햐여 네 당상기 가서 여츠 // 햐라 햐고 편지햐여 보니라...당상니 디회를 햐여 편지를 바다 보오니 갈와쓰되 흰 종희는 성니되 빅가라 햐웁고 쏘흔 루튼 쫓스 님 아니오라 누루 황자 되웁고 쏘흔 그 디나무 거린 쫓스 님 안니오라 디 죽자 되웁거늘 엇지 일러흔 거슬 모르고 엇지 빅관나라 칭햐고 쏘 엇지 급부 당상니라 햐고 쏘흔 엇지 도스라 햐리노...삿테 햐여숫되 김공덕의 군수를 보니여 노비칙니 잇스을 테오니 썰리 츠자 전햐웁소셔 햐여거늘...츈시 군수를 명햐여 김공덕의 가서 노비칙을 츠자오라 햐시거늘...군스 노비칙을 가지고 급피 도라와셔 당상을 띄고 썰리 후원의 가서 소제기 드리니라 소제 칩을 보기를 다햐고 다시 전갈햐되 급피 츈시를 보니여 빅황죽을 자바다가 업정 치죄햐고 쏘흔 문초햐여 보시웁소셔<sup>10)</sup>

이소저는 정수경이 과거를 보기 위해 경사에 올라와 점을 쳤을 때 판수가 주었던 그림을 해독하여 진짜 범인을 지목한다. 이소저가 판수의 그림을 판독하는 과정이 수수께끼를 푸는 추론의 과정과 흡사하고 이는 추리소설의 형식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sup>11)</sup> 살인 사건 이전에

10) <정수경전>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54장본, 77쪽.

11) 이현홍(앞의 책, 189~195; 308~309쪽)은 이소저가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듯한 추리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소저가 탁월한 해결자의 면모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규웅(『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15, 85~87쪽)은 <정수경전>이 살인사건을 다루고 사건 해결을 위해 추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추리 형식의 소설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사례라고 보았다.

그런 판수의 그림에서 범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는 설정은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는 추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소저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힌트에서 이름을 읽어내는 단선적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인의 의혹과 범죄 사실은 소설에서 폭력적인 소재로, 혹은 파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되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인물의 선악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초자연적인 힘이나 도덕적 우월성, 권력자의 의지, 비현실적 능력과 같이 사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특성은 소설이 자극적인 범죄 사건을 도구로 삼아 운명의 운보나 윤리적 실천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옥선몽>의 옥사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윤리 의식 면에서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이 소설이 두채룽의 죽음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옥사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과 <옥선몽> 특유의 서사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옥선몽>에서 의욕을 다루는 방식

#### 1) 증거와 목격자의 전략 배치

<옥선몽>의 독자는 처음부터 전몽옥이 무죄이고 두채룽이 자결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채룽의 죽음을 둘러싼 옥사에서는 누가 범인인지가 아니라 전몽옥이 어떻게 누명을 벗게 되느냐가 관심사가 된다. 그런 까닭에 두 인물이 만나고 헤어진 뒤 채룽이 죽는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묘사를 하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단서들을 배치한다.

① 그 때 채릉이 부리는 시녀 금옥은 동방에 있었는데 문틈으로부터 몰래 들으니 신발 소리가 얼핏 들렸다. 이에 채릉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멈추고는 함께 침실에 나아가 서로 기뻐하며 바다와 산을 두고 맹세하고 삼생의 인연을 거듭 맺었다.<sup>12)</sup>

② 그리하여 슬퍼하면서 헤어져 전랑이 누각에서 내려와 가만히 초당에 돌아오니 때는 사경 일절 때였다. 그래서 의동이라는 종을 불러 다시 초를 켜고 이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다. 채릉은 전랑을 보낸 뒤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마음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갖 근심이 일어나니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이르길, “전랑과의 약속을 따르코자 하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가문 일대에 누가 되며, 전랑과의 약속을 따르지 않코자 하면 군자에게 신의를 잃어 내 몸이 평생의 한이 되리니 거취를 정하기 어렵구나. 차라리 문득 알지 못하고 단지 젊은 여자의 기구한 운명을 원망하고자 하노라.” 라고 했다. 그리고는 근심스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다가 거의 오경 말에 이르러 금옥을 불러 촛불을 끄고 물리게 했다. 벽으로 다가가 은으로 만든 칼집에 옥장식이 되어있는 작은 칼을 꺼내어 손으로 자결했다.<sup>13)</sup>

①은 전몽옥이 채릉과 편지를 주고받은 뒤 인봉루에서 만나는 밤, 채릉의 시녀 금옥이 누군가 채릉의 처소에 왔음을 알아채는 장면이다. ②는 몽옥이 인봉루에서 본인의 처소로 돌아와 종 의동의 시중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고, 채릉이 몽옥과 부모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금옥을 물리치게 하

12) 當下菱娘所使丫鬢錦玉，在洞房從門縫裡竊聽，頗有鳴屨之響，菱娘因點頭止語，相與就寢交權，誓海盟山，重結三生緣業. 국도본 <옥선몽>상 57쪽.

13) 因偃偃而分，錢郎下樓潛歸草堂，時則四更一點時候也。因呼小奚名義童者，更爲點燭開衾就睡矣，菱娘自送錢郎之後，轉輾玉枕，惓惓不寐，惹得萬端愁緒，審思自言曰：“欲從錢郎之約，則貽羞於父母，爲家門一代之累，不從錢郎之約，則失身於君子，爲吾身百年之恨，去就兩難，寧欲溘然無知，而只怨紅顏之薄命。”因於邑不自勝，幾至五更之末，因呼錦玉，使滅燭而退，就壁上解下銀鞞玉珮佩刀，以手自裁. 국도본 <옥선몽>상 58쪽.

고 자결하는 부분이다. ①과 ②는 본격적으로 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기 전, 즉 채릉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기 이전 상황을 서술하는 것인데,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두 사람의 밀회나 채릉의 자결 시간, 장소, 정황 등을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눈빛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밤을 틔타 인봉루에서 몰래 만남을 가졌으나 채릉의 몸종 금옥이 눈치챘으며, 몽옥이 채릉과 헤어져 새벽녘에 숙소로 돌아온 것을 종 의동이 확인하였다. 또 서술자는 전몽옥이 초당으로 돌아온 때, 그리고 채릉이 금옥을 숙소에서 물린 때 등 서사 진행 과정에서 주요한 시각을 노출한다. 이 외에도 전몽옥과 채릉이 주고받은 시와 편지 역시 일일이 제시하여 설레고 애뜻한 마음뿐 아니라 만남의 계기,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요소들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송사소설의 경우 옥사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범인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식이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도가 현실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장화홍련전>에서 원혼이 등장하여 지시하거나 <왕제홍전>에서 몽조를 통해 범인을 찾기도 하며 <정수경전>과 같이 점괘를 푸는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옥선몽>에서는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근거나 목격자가 될 인물의 존재에 대해 미리 언급한다. 이처럼 목격자와 행위의 시각, 증거 등을 꼼꼼하게 기술하는 것은 옥사의 해결과정에서 확보해야 하는 개연성을 고려한 작가의 기획이다. 채릉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소주 지부가 직접 사건 현장에 와서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와 피의자를 잡아 들여 심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③ 지부가 소장을 본 뒤 즉시 옥안을 작성할 아전과 간수 등에 명하여 법

집행 기구와 심문용 곤장 등을 지니게 하고 호령하면서 거리를 메우며 와서 곧 희탁의 집에 이르렀다. 지부가 직접 들어와 검시를 하는데 머리를 찢혀 얼굴 전체에 전혀 상처가 없었고 단지 목 사이에 칼이 꽂힌 흔적만 있었다. 그리고 칼날 끝이 목을 조금 오른쪽에서 통과하여 약간 왼쪽을 향해 가로질러 있었으며 칼은 곁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 흔적이 칼날의 반 치쯤 배어 있었다.<sup>14)</sup>

지부는 사건을 기록하고 관련자를 심문할 준비를 하여 현장으로 가서 먼저 검시(檢屍)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신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묘사한다. 양반가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체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부녀자의 시신에 대한 검시는 꺼려서 시친들이 면검(免檢)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15)</sup> 그러나 <옥선몽>에서는 검시를 면밀하게 진행하여 채롱이 죽는 과정을 밝히는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조사 과정에서 시신 뿐 아니라 채롱이 자결하면서 사용한 칼의 상태도 자세히 포착된다. 이처럼 수집된 증거와 검시 자료는 뒤에 채롱이 죽는 과정을 밝히는 핵심 근거로 분석된다.

사건 관련자 심문도 차례차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목격자인 금옥은 채롱이 죽던 밤에 몽옥이 인봉루에 들어와 둘 사이에 승강이가 있었음을 진술하여 몽옥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위기를 증폭시킨다. 그 뒤 두 번째 목격자인 의동은 몽옥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진술을 한다. 몽옥이 저녁 무렵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각이 사경 일점이며 그 이후 줄곧 침상에서 잤다는 사실을 아뢴다. 특히 의동은 파루, 즉 오경 삼점 이후에 채롱이 죽은 사실을 들어 그 이전에 돌아와 처소에 머문 몽옥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한다. 의동이 목격한 바는 금옥의

14) 知府監訖，卽令當案孔目與押牢做公的人，持法器訊杖等物，呵喝隘巷而來，直到希卓家。知府親入檢驗，仰面合俱無傷損，只有項頭間割刃之處。而刃未夾脰綰右，微橫向左，刃落在旁，血痕沁刃半寸許矣。 국도본 <옥선몽>상 60쪽.

15)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휴머니스트, 2018, 216쪽.

증언으로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린 몽옥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몽옥과 채릉이 나는 편지도 소주지부의 소장(訴狀)을 받은 도독이 몽옥의 죄를 확정하지 않고 판결을 유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④ 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흐드러져 산과 바다를 두고 맹약을 맺으니 다시 어찌 혐의하는 마음을 내어 도리어 칼날의 독수를 찔렀는가? 몽옥이 억지로 정조를 빼앗은 것으로 혐의를 두면 시비가 진술한 바로 죽히 명백하고, 두녀가 그를 따르겠다 했다는 말로써 보자면 곧 편지의 은밀한 뜻으로 또한 입증된다.···이 옥사는 가볍게 논할 수 없으니 죄를 조사하여 원인을 갖추어 알리고 몽옥 이하 심문한 각 사람들은 각각 따로 엄히 가두어 지키고, 그 나머지 가까운 이웃 등의 사람은 잠시 보내주고 판결을 내려 처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sup>16)</sup>

도독은 소주지부의 보고를 받고, 두 사람의 애정이 도타운데 전몽옥이 두채릉을 갑자기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한다. 시비의 증언만 보면 몽옥의 죄가 의심되지만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몽옥이 강압적으로 채릉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가 상충된 상황에서 소주에 회보하여 사건 처리를 보류시키고 추밀원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린다. 결국 채릉의 자결은 형부상서 진산의 조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같이 <옥선몽>에서 옥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작가의 꼼꼼한 계획 아래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몽옥은 이웃에 사는 두채릉과

16) 諒情撓意蕩，以結山海之芳盟，貝甘'更何生嫌，而反施鋒鏑之毒手乎？以夢玉歸之強驅之科，則丫鬢之所供，足爲發明，以杜女謂相從之說，則花箋之微意，亦爲等證。···此獄事，不可輕易論歎，茲當具由○啓聞是遣 夢玉以下應問客人等，客別嚴囚守直，其餘切隣等人，姑爲放送，以待○判下處分，宜當向事。 국도본 <옥선몽> 67~68쪽.

산호발 너머로 눈빛을 나누고 애뜻한 감정을 느끼며 곧 채릉으로부터 밀회를 제안하는 연서를 받고 그날 밤 인봉루로 찾아가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 결연 과정을 묘사하면서도 애정 관계를 드러내는 데 매몰되지 않고 증거나 단서를 세세하게 심어두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마련해 두었다. 이 단서들은 결국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하나하나 환기되며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다. 또 두채릉과 만나는 계기를 낭만적으로 서술할수록 나중에 진행되는 옥사가 더욱 의외의 상황으로 대비되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비극적으로 읽히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기획과 구성은 증거와 증인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추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옥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 재미를 만들어낸다.

## 2) 사건의 반복 서술과 재해석의 가능성

고전소설에서 인물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대체로 일직선으로 진행된다. 이야기는 주인공 입장에서 기승전결로 전개되며 화자의 진술 순서에 따라 독자도 한 방향으로 사건을 따라간다. 그런데 <옥선몽>에서 채릉의 죽음에 의한 옥사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사건의 처음으로 여러 차례 되돌아간다.

<옥선몽>에서 서술자는 전몽옥과 두채릉이 만나서 채릉이 자결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에 따라 서술한다. 그러나 다음 날 채릉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옥사가 성립된 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을 진술하는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 특정 시간이 반복적으로 조명된다. 채릉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을 들은 오추리의 이장이 소주 지부에 소장을 올리자, 소주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목격자 혹은 용의자들을 불러

사건에 대해 심문한다. 채릉의 시비 금옥과 몽옥의 몸종 의동, 그리고 몽옥은 각기 본인이 목격한 바에 따라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재구성한다.

⑤ 두랑께서 부리시던 시녀 금옥은 나이가 열 셋입니다. 소녀는 두랑의 시비로 여러 해 받들면서 일찍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아씨께서 과부가 되신 뒤로 동방에서 가까이 모시게 되어 아씨의 동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니, 어제 초경 때에 이 덕 담장 동쪽에 사는 전수재가 몸을 숨겨 누각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강하게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비록 내밀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전날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다가 마침내 함께 가기를 청하자 남자가 굳이 거부하면서 어찌 보잘 것 없는 딸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누를 끼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수재가 재삼 청했어도 남자는 끝내 즐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창을 통해 엿보다가 수재가 저의 신발 소리를 듣고 손을 휘저으며 말을 못하게 하시기에 저는 스스로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속소로 물러나와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하오나 필경 억지로 데려가려 하다가 끝내 거부한 까닭에 이런 흉악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했을 것이니 바라건대 자세히 밝혀 두남자의 복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sup>17)</sup>

17) 杜娘所領丫鬟錦玉，年十三。矣女以杜娘侍婢，屢年奉事，未嘗辭側盆除良，一自杜娘孀居之後，遍侍洞房，娘娘動靜，一無不知(이습더니는白加尼)，昨日初更時分，矣宅墻東居錢秀才，偷身入樓，娘子不甚拒却(이습는白齊)，矣女雖不知肯綮，似有前日之約矣。繼以詞律唱和(이다가는如可)，末乃要與俱去(이거늘는去乙)，娘娘牢拒，以爲豈以么麼一女子之故，貽累於父母哉！秀才再三固請(이습아두는白良置)，娘娘終不肯諾(이다는如)，矣女方舐窓偷見(이습더니는白加尼)，秀才聞矣女屣響，揮手止語(이습기는白只)，矣女自料不緊，因爲退宿，不知厥後之事(이오나는乎乃)，必是强要其去(이다가는如可)，終是牢却，故行此凶穽叵測之事是乎尼，伏乞細細窮窺，以爲杜娘子復讐之地，千里血視。국도본 <옥선몽>상 60~61쪽. 국도본에서 본문의 글자보다 작은 크기로 기록한 글자들은 ()안에 표기한다.

⑥ 죄인 전몽옥은 나이 십삼 세입니다. 저는 본래 전당의 유생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다스리고 계신 오추리에 머물러 지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무는 집이 두희탁의 집과 담장이 서로 이어져 있었어도 빈부가 같지 않아 전혀 서로 왕래가 없더니 이달 초 9일에 제가 마침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졸음에 겨워 뜰을 거닐 때에 노란 국화 한 가지가 옷소매에 날아와 두드리거늘 제가 고개를 들어 보니 한 나이 어린 남자가 누각 위로부터 장난을 치며 한 폭의 화전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글 가운데 어둠을 틈 타 올라오라는 뜻을 보이므로 제가 두루 깊이 생각하다가 어린 나이로 마음이 흔들리고 도리어 정욕에 이끌려 황혼을 기다려서 죽음을 개의치 않고 틈을 노려 들어가니 그 남자가 발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쁘게 맞아서 저와 더불어 한 때의 정을 다하였습니다. 또 얼마간의 시로 가슴 가득한 생각들을 모두 읊었는데, 그 남자의 시 가운데 ‘탁문군이 깊은 밤에 따라 감을 애석히 여기네’라는 구절이 있어 제가 마경의 일에 비유하여 그 마음을 떠 보니 그 남자는 가문에 누를 끼친다는 이유로 곤란해 하여 제가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고 이에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뒤에 이런 망측한 변이 일어났으니 제가 겪은 바는 이와 같을 뿐이고 다시 아뢰일 일은 없었습니다. 어제 누각에서 던진 시를 적은 종지와 오늘 밤 주고받으며 읊은 시를 적은 두루마리를 일일이 살펴보고 제가 사실을 자세히 아뢰일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매우 애절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sup>18)</sup>

18) 罪人錢夢玉，年十三。矣身本以錢塘儒生，早喪父母，僑居治下吳趨里中，不滿一朔矣。矣身所寓之室，與杜希卓家，垣牆相連(이슬아두는白良置)，以貧富不同，故絕不相通(是白加尼)，今月初九日分，矣身(맛츨適音)，在家讀書(是如可)，睡困步庭(이견다회는在如中)，有一朶黃菊，飄撲於衣袂(하이거늘爲有去乙)，矣身仰頭視之，則有一年少娘子，從樓上戲劇而追于(조초)，投下一幅花箋，書中示以乘昏上來之意(是如乎)，矣身白般審思是如可，以年小搖蕩所致，反爲情慾所使，黃昏(기둘여岐等)，忘死闖入(이온즉是乎則)，厥娘候在簾間，權欣迎接(이온들로是乎等以)，矣身(더불어茂火)，以盡一時之情願，又以如干詞律，具敘滿腔端緒，而厥娘詞中有曰，‘敢惜文君暗夜從’之句，故矣身喻以馬卿之事，以探其意，則厥娘以貽累家門爲難，故矣身不敢強請，仍爲還栖矣，不意厥後有此罔測之變。矣身所經歷如此(뿐이슬고岔是白遣)，更無仰供之事(이사남아是沙餘良)，昨日投樓詞箋(과

⑦ 몽옥의 종 의동은 나이가 열 넷입니다. 저의 주인어른은 어제 밤 저녁 무렵에 중문으로 나가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흥이 나서 달밤에 산보하러 나가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잠이 들어 쓰러져 코를 골더니 밤이 깊은 뒤에 주인어른이 집에 돌아와 저를 깨워서 촛불을 붙이라고 하시므로 제가 놀라 일어나 등불을 붙이되 존엄하신 까닭에 감히 그 행동거지에 대해 묻지 못했고 일어나 시간을 본즉 경고가 겨우 4경 1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주인어른께서는 침상에 기대어 주무시다가 꼭 아침 밥 지을 때에 일어나신바 간통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두렁이 칼에 찢린 것이 이미 파루 뒤라고 하니 이것은 주인어른께서 돌아오신 뒤입니다. 주인어른께서 이러한 무고를 입으시어 매우 애매하게 되셨으므로 세세히 살피시어 전노아의 사건을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천만 바랍니다.<sup>19)</sup>

세 사람의 진술은 9일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어난 일에만 대한 것이다. 서술자의 발화는 처음부터 전몽옥의 감정과 두채룡의 속내를 드러내며 이날의 일을 보여주지만, 지부의 심문을 거치면서 이날 밤 사건은 세 인물의 입을 통해 다시 묘사된다. 이들의 진술은 전몽옥과 두채룡이 미리 약속을 하고 초경 즈음에 누각에서 만났고 시를 주고받았으며 몽옥이 함께 가기를 청했으나 채룡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몽옥이 9일 밤 숙소를 나갔다가 다음 날 4경 1점이 되기 전에 숙소에 돌아왔음을

果), 當夜酬唱詩軸乙, 這這垂覽, 以爲矣身伸白之地, 千里哀懇. 국도본 <옥선몽> 상 62~63쪽.

- 19) 夢玉奴子義童, 年十四. 矣身主爺, 昨夜黃昏時分, 出自中門, 迤西而去(是白齊), 矣身以爲乘輿踏月而出, 故初不致訝(是白遣), 矣身則以愛睡所致, 頹頹翻劇息(是白加尼), 夜深後, 主爺還家, 喚醒義身張燭(是如乎), 矣身驚起點燈(是乎矣), 以尊嚴之故, 不敢問其行止(是白遣), 起看時候(是乎賄), 更鼓纔報四更一點矣. 主爺因倚枕昏眠, 恰趁朝爨, 乃起(是乎所), 作姦與否, 矣身未能詳知(是白乎矣). 杜娘之刺刀則, 已在罷漏之後云, 此乃主爺還之後也. 主爺之蒙此誣告, 極爲曖昧(是如乎), 細細探究, 以爲錢爺白頃之地, 千萬伏乞. 국도본 <옥선몽> 상 64쪽.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각각의 진술 속에서 인물의 태도와 상황은 조금씩 다르게 조명되고 해석된다.

⑤에서 금옥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전랑이 적극적 인 반면 채릉은 소극적이었다. 특히 채릉은 찾아온 몽옥을 거절하지 못하여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 함께 가지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모를 걱정하며 거듭 허락하지 않는 모습으로 목격된다. 그러나 ⑥에서 전몽옥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조금 다르다. 채릉이 먼저 유혹하여 몽옥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 찾아가는 것이며 몽옥이 시를 통해 마음을 떠보았으나 채릉이 난처해하여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몽옥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것은 채릉이고 그는 금옥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진술한다. ⑦에서 의동은 몽옥이 저녁 무렵 숙소를 나가 서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새벽녘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초를 켜게 하고는 침상에서 아침을 먹기 전까지 잠을 잤던 상황을 본 대로 이야기하여 몽옥이 채릉과 만나기 전과 후의 행적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금옥은 본인이 진술한 것처럼 채릉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 정도로 가까이 지낸 몸종이며 그만큼 정서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금옥의 눈을 통해 본 당일의 상황은 몽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채릉은 문제가 되는 밀회에서 부득이하거나 번뇌하는 모습으로 존재했다. 이와 달리 채릉과의 만남에서 첫눈에 마음이 동한 몽옥은 채릉을 다분히 유혹자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들의 관계는 채릉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정욕에 이끌려 어쩔 수 없는 만남을 가졌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시를 통해 던지지 떠났을 뿐 금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권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회상한다. 이처럼 두 인물은 같은 시간의 일에 대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드러난다. 두 사람과 달리, 의동의 진술은 사건 전후 몽옥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금옥과

몽옥이 각기 자신의 시각에서 당시 행적을 진술하고 인물의 태도나 입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기억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의동의 기억을 통해 보완하게 된다. 의동이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몽옥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건의 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의동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짚어낸 몽옥의 귀가 시각은 당일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열쇠로 작용한다. 금옥과 몽옥의 진술에 의동의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몽옥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독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이다.

<옥선몽>에서 옥사 화소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시간만이 아니라, 각 인물에 의한 사건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사건의 시간에 대한 반복적 서술을 통해 서술자의 진술에서는 섬세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이 재현되고 여러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이 촘촘하게 구체화된다. 이처럼 사건의 반복적 진술, 시간의 역전적 구성은 작중 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권위를 해체하고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는 과정에 독자를 참여시킨다. 독자의 적극적인 독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 세계에서 윤리적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제도적 절차에 따른 수사와 논리적 판결의 재현

두채릉의 죽음에 연루된 전몽옥이 살인의 누명을 벗는 과정은 관에 의한 여러 증거 수집과 목격자 진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혼이나 점괘 등 초현실적 세계의 개입뿐 아니라, 해안을 지닌 특출한 개인의 활약도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관의 주도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며 그 처리 과정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관	사건 수사 및 절차	삽입문
오추리(吳越里) 이장	사건 인지 소주(蘇州) 지부에 보고	소주 지부에 사건을 보고하는 공문
소주 지부	사건 현장에서 초검(初檢), 증거 수집 가족·목격자·피의자 심문	금옥·전몽옥·의동에 대한 심문 진술
	절동성(浙東省) 도독에게 사건 보고	절동성 도독에 사건을 보고하는 공문
절동성 도독	사건 검토 후 판결 보류	소주에 회보
	추밀원(樞密院)에 사건 보고	추밀원에 사건을 보고하는 공문
추밀원[황계]	형부(刑部)에 사건 배당	비답
형부 상서[진산(陳山)]	관련자 진술·시신 검안장부·조사 보 고서 검토 후 판결	판결문
	추밀원에 판결에 대한 계를 올림	계
추밀원[황계]	판결 재가	조서

사건이 일어난 오추리의 이장이 소주 지부에 보고하고, 지부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와 심문 내용을 기록하며 이를 절동성 도독에게 보고한다. 절동성 도독은 보고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앞서 ④에서와 같이 사건의 판결을 보류하고 추밀원에 판결이 애매한 사정을 알린다. 그 보고 내용만으로는 채릉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⑧ 본 성에 속한 소주의 사인 두희탁의 딸은 나이 어려 과부가 되었는데, 담장을 이웃하여 머물고 있는 전몽옥과 누각 위에서 보고 꽃과 편지를 던져 몰래 밤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운우지락을 나누며 통간한 것은 이미 각 사람의 공초에서 나온 바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칼에 찔려 죽음에 이르러 사건이 깜깜히 밝힐 수 없는 옥사가 되더니, 몽옥이 꽃을 찾는 애뜻한 정으로 하필 깊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흉악한 짓을 했을 리 없고, 두녀는 곁을 던지며 부드러운 태도로 또한 실절을 한 뒤에 절개를 지켜 죽었을 리 없으므로 죽었다 해도 죽이

지 않았다 해도 모두 의심스런 사건이 됩니다. 감히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사오니 이러한 내용으로 갖추어 잘 아뢰어주옵소서.<sup>20)</sup>

주변인의 증언과 주고받은 편지에 따르면, 채릉이 몽옥을 보고 꽃과 편지를 던졌으며 두 사람이 약속을 해서 밤에 만나 통정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만나 하룻밤의 정을 나누는 사이라면, 전몽옥이 두채릉을 죽였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두채릉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했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도독은 정황을 따져보며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지만 모순된 정황을 이치에 맞게 풀어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상부기관에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이에 추밀원에 보고된 사건은 다시 형부에 배당되고 형부상서 진산이 사건에 대한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하는데, 진산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진산의 판결문을 통해 ③에서와 같이 검시, 목격자 심문, 증거물 수집 등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⑨ 삼가 소주부에서 올린 시신 검안 장부를 살펴보고 문서와 각 사람들의 진술한 비를 검토하니 두녀의 자결이 적실하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칼날 끝이 목을 조금 오른쪽에서 통과하여 약간 왼쪽을 향해 가로질러 있었으며 칼은 곁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 흔적이 칼날의 반 치쯤 배어 있었다고 했다. 가령 갑이 있어 을의 목을 찌르고자 한다면 갑의 오른쪽은 곧 을의 왼쪽이고 갑의 왼쪽은 곧

20) 伏以本省所屬蘇州士人杜希卓之女，年少新寡，與比隣萬人錢夢玉，從樓上目成投花擲箋，約以暗夜相從，其權合通姦，已出於各人供拱招。而當夜忽然剃刀致斃，事在黠黠無證之案(是白如乎)，以夢玉探花繾綣之情，必無行凶於耽愛之女，以杜女投橘樣槎之態，亦無死節於失行之後，於死於生，俱爲疑案。不敢擅斷(하누은이의의금爲臥乎事是良尔) 詮次(저처로), 善啓向教是事. 국도본 <옥선몽>상 68~69쪽.

을의 오른쪽이므로 갑의 오른손으로 을의 목을 찌를 것이다. 그리고 혹 착오가 있더라도 칼끝이 마땅히 목의 왼쪽 옆으로부터 조금 목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로질러 들어갔을 것이다. 어찌 오른쪽을 찌러 왼쪽을 향할 리가 있겠는가? 만약 을이 스스로 목을 찌렀다면 진실로 당연히 오른손으로 그 오른쪽 옆을 찌렀을 것이고 그 형세가 마땅히 조금 왼쪽을 향해 가로질렀을 것이다. 이는 두녀가 자결했다는 첫 번째 판단 근거이다. 또 무릇 사람을 찌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자 하여 찌르므로 비록 칼을 몇 치 들어가게 한다 해도 오히려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피가 반 치만 배고 그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것은 스스로 그 목을 찌른 까닭에 깊이 찌를 겨를이 없이 상처에 통증을 느껴 기절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피의 흔적이 어찌 깊이 적실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두녀가 자결했다는 두 번째 근거이다. 금옥이 촛불을 끌 때 두녀는 전과 다름없이 살아있었고 이미 오경 말이었는데, 의동이 등불을 붙일 때는 전생이 이미 그 집에 돌아와 있었고 겨우 4경 초에 이르러 있었다. 4경에 집에 돌아온 사람이 어찌 오경에 누각에 있는 사람을 해치겠는가? 이것이 두녀가 자결했다는 세 번째 판단 근거이다.

두녀는 필시 본성이 지조가 있어 예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말았다. 비록 절개를 잃은 탄식이 있지만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오히려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칠까 염려하였다. 한편으로는 군자와 약속한 것을 어기기 곤란해하며 한편으로는 가문에 욕을 끼치기 어려워하여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니 근심이 어지러이 모이고 혼이 가만히 사그라들었다. 편벽되고 원만하지 못한 성품으로 차라리 문득 모르고자 하여 하찮은 신의로 목숨을 가버려 여기는 데 이르렀다. 전몽옥은 매우 애매하게 되었으나 이미 그 규문을 범하였으니 저로부터 연유된 허물이 없지 않다. 마땅히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여 다만 3년 징배하도록 하고 관련되어 참고 조사받은 사람은 한 번에 모두 풀어줄 일이다.<sup>21)</sup>

21) 謹按蘇州府所上屍帳，考檢文案與各人所供，則杜女之自裁的實(爲如乎)，檢報內，刃末來脰稍右，微橫向左，刃落在旁，血痕沁刃半寸云，假令今有某甲欲刺某乙之頸，則甲之右，卽之左也，甲之左，卽乙之右也。以甲之右手，刺乙之脰，而或

위 판결문에서는 채랑이 자결했다는 결론부터 밝히고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검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리이다. 채릉의 시신에 남은 상처는 목의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나 있다고 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치려 했다면 왼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상흔이 남아야 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을 찔렀을 때의 상처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결한 증거로 해석했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칼 역시 죽을 때의 상황을 증언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해치려 했다면 죽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칼을 목에 깊숙이 찔렀을 것이므로 칼에 혈흔이 반만 남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목을 찔렀을 경우 통증 때문에 깊이 찌를 수 없으므로 칼에 반 치쯤 밴 혈흔 또한 자결의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시신에 남은 상처와 칼에 남은 혈흔을 통해 자결임을 추리해 내는 방식은 <무원록(無冤錄)>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원록>은 중국의 법의학서로 조선 초기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고 언해되기도 했으며, 의안(疑案)을 처리할 때 애용되면서 여러 문헌에 참조, 인용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스스로 베고 죽은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을 서술할 때 칼의 방향이나 깊이, 혈흔의 모양을 설명하는데<sup>22)</sup> 채릉의 시신과 칼에서 발견되는 양

---

有差誤，則刃未自當從脰之左旁，稍橫入脰之右邊矣，豈有刺右向左之理乎？落使乙者自刺其頸，則固當以右手刺其右旁，而其勢宜有稍橫向左之理矣。此乃杜女自裁之一斷案也。且凡刺人之人，欲其必死而刺之，則雖使刃入數寸，猶恐不死，豈有血沁半寸而止哉？必是自刺其頸，故不暇深刺，而痛創氣絕，遂致殞命也，血痕安得深濡乎？此乃杜女自裁之二斷案也。若夫錦玉滅燭之時，杜女宛然生在，而已爲五更之末矣，義童点灯之時，錢生已歸其家，而纔到四更之初矣，四更歸家之人，何以戕害五更在樓之人乎？此乃杜女自裁之三斷案也。大抵杜女必是素性耿介，足能以禮自持，而情慾所動，不能自克。雖有失節之歎，一片慧性，尙念貽羞於父母。一以難負約於君子，一以難遭辱於門戶，去就兩難，愁緒紛集，芳魂暗銷。以偏齷不圓之性，寧欲溘然不知，致此輕生之小諒也。錢夢玉極爲曖昧(是乎矣)，既有干犯於其門，則不無由我之辜。當減死一等，徒三年定配磨鍊(是遣)，干連參訂諸人，一并放送向事。 국도본 <옥선몽>상 69~71쪽.

상과 거의 일치한다. 진산이 전개한 사건 추리의 방식이 당시 수사기법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자결의 증거는 사건 발생 시각이다. 살아있는 두채릉을 금옥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각이 오경 말이었는데, ⑦에서 의동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전몽옥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시각은 4경 1점이므로 전몽옥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처럼 세 가지 근거에 의한 분석은 사건의 정황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서 추리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절정부도 독이 두 인물이 만난 계기, 상황, 심리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게 한다. 조사 결과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각 단계의 공문을 형식에 맞게 삽입하면서 공적 기관의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공들여 재현하는데, 거둬진 조사와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사건이 선명하게 규명되며 그 수사 과정을 독자 역시 확인하게 된다. 이는 인물이 본래부터 지니는 윤리적 바탕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적 도구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황제의 재가를 거쳐 진산의 판결에 따라 사건은 최종 처리된다. 전몽옥은 살인 누명에서는 벗어났지만, 사건이 자신으로부터 연유된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양주에 3년 징배된다. 전몽옥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독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지만, 그는 이 옥사에 한해서 선인도 악인도 아니며 옥망에 이끌려 실수를 할 수 있는 개인일 뿐이다. 이러한 판결은 채릉의 죽음에 대해 절차에 따라 온당한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읽히게 된다.

22) 왕여, 최치운 외 주석, 『신주무원록』, 김호 옮김, 사계절, 2003, 445~449쪽.

#### 4. 결론: 〈옥선몽〉 의옥 서사의 의의

옥사를 다루는 고전 서사에서 범죤나 살인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너머에 그 사건의 진실이 고정불변의 형태로 놓여있어서神通력이나 신적 존재에 의지하여 해결되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선악을 드러내며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를 잊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범죤을 소설화한 작품에서는 비교적 현실적 맥락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문소설인 <김씨남정기><sup>23)</sup>는 김씨가 남편을 죽인 자를 찾아 처벌하고 신원하는 내용이다. 노비 박천강 등을 추노하려 갔던 황동로가 살해당하는데, 죽은 황동로가 그 아내 김씨의 꿈에 나타나 관련자를 잡도록 도와, 관련자들을 문초한 끝에 천강이 황동로를 죽인 사실과 시신의 매장 위치 등을 알아내고 황동로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시신을 찾는다. 이후 김씨가 그간의 문안과 공초 등을 어사에게 올려 결국 죄인들이 장살되고, 김씨는 천강 형제의 간을 씹어 복수한다. <김씨남정기>에서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에 근거해서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지만, 이 작품도 순차적인 서사의 기술이나 피해자의 현몽(現夢)에 의한 조력, 특히 김씨의 열행으로 귀결되는 작품의 주제의식이 기존 고전소설의 문법을 떠올리게 한다.

그보다 <옥선몽>과 옥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작품은 <와사옥안>이다. <와사옥안>은 울챙이를 죽인 범인을 잡는 과정을 다룬 우화소설이다. 검험을 맡은 관리가 관련자의 심문과 대질, 검사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범인을 확정하여 판결하는 내용으로 작품의 처음부터 판결에 이르기 전까지 서술자의 가치판단이 배제된다. 수사

23) 권이진(權以鎭)의 <金氏傳>(『有懷堂先生集』 권11)에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金氏南征記>(李佑成 所藏, 필사 33장본)가 유일본으로 전한다.

과정에서 수집된 단서, 진술 등은 관찰되고 청취된 대상이며 실무적 절차에 따라 파악된 ‘사실’로 간주되고 있다.<sup>24)</sup> 또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건의 관련자들과 피의자로 지목된 대망(大蟒)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옥선몽>에서 옥사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확인되었다. 두 작품 모두에 이두가 사용되고 공안(公案) 작성이나 실무에 밝은 서술이 진행된다는 점도 공통된다. 복잡한 절차와 양식을 재구성하고 검안을 소재로 한 송사소설은 <와사옥안>이 유일하다고 파악되기도 했으나<sup>25)</sup> 여러 이본이 전하는 <옥선몽>의 옥사 화소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창작기법이 단지 특수한 개인에 의해서만 고민되고 구현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서사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와사옥안>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의인화하고 사건이 범죄의 고소로 시작하여 판결로 끝나면서 대망을 범인으로 확정하지만, <옥선몽>에서는 전몽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 서사가 구성되는 가운데 옥사가 벌어지고 옥사가 인물이 경험하는 역경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후자에서 송사 과정의 현실감이 극대화되고 주인공이 누명을 벗기까지 감정이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범인, 즉 악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옥사가 인간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며 보다 입체적으로 읽히게 된다.

<옥선몽>에서 전몽옥이 휘말린 의옥은 사건의 성립부터 해결까지 공고한 현실로 존재한다. 이 옥사는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적 사건인 까닭에 다른 것보다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데 공을 쏟는다. 범죄를 다루는 고전

24)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마검>·<구 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0~55쪽.

25) 박소현, 『법률과 사실, 그리고 서사-법문학비평의 관점에서 본 전근대 동아시아의 범 죄소설』, 『中國文學』 98, 한국중국어문학회, 2019, 13쪽.

소설에서 인물의 시신이 자세히 묘사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원혼의 형상으로 죽음의 상태가 표현되었는데, <옥선몽>에서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채릉의 시신이 어떠한 형태로 놓여있는지 상세히 제시된다. 그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사건의 실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관의 분석 대상이 되어 상처 난 시신 그대로 세상에 노출된다.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거인 시신 자체도 대상화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부녀의 시신이 초점화되어 주요 증거로 부각되는 것은 <옥선몽>이 이 사건을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 이념적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만나는 여성 인물들이 높은 부덕(婦德)을 갖추거나 양소유의 치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량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전몽옥과 인연을 맺은 두채릉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 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서사의 짜임을 맞물리게 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옥선몽>의 옥사 화소에서 주인공인 전몽옥은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살인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관의 절차에 따른 조사에 임할 뿐이다. 누명을 쓴 전몽옥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관의 공식 절차다. 제대로 된 증거 수사와 심문, 판단이 어려울 때 상급 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과정을 거쳐 전몽옥은 살인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전동홀과 같은 유능한 판관이 없으면, 혹은 원혼이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이 어려웠다. 이러한 설정은 무능한 관리나 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옥선몽>에는 관의 시스템에 의한 신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

26) 범죄를 다루는 소설에서 인간의 몸이 분석 대상이 되고 파편화된 합리성이 중시되면서 지적 능력이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81~91쪽 참조.

다. 철저한 수사와 분석, 이를 토대로 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공적 절차에 상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의 절차에 의해 정당한 판결에 이른다는 결론은 지극히 보수적인 세계 인식을 드러낸다. <옥선몽> 의옥 서사는 조선후기 송사소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20세기 초 탐정소설이 일제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던 것과는 다르다. 현실 권력의 시스템을 통해 정의의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정의 서사에서 문체적 죽음을 매개로 날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는 찾기 어렵다.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오히려 촌촌한 증거의 배치와 분석 과정을 통한 서사의 기술적 완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옥선몽>에는 전몽옥이 작성한 과거문의 형식으로 작가 탕옹의 소설관이 반영되어 있다. 패설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는 소설에 대해 비판적이던 식자들의 시각을 의식하여 소설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데 치중하며 소설을 읽는 ‘맛’을 긍정하였다.<sup>27)</sup> 더 나아가 근래 공허하고 괴이한 말의 폐단에 대한 책문(策文)에서는 바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진실하지 못하여 믿을 만하지 않게 되고<sup>28)</sup> 정심(正

27) 然而文人之口氣，好新而貪奇，雖欲別立門戶，別設畦畛，而其腹胃，則皆自九經中出來，故不敢背馳於秉彝之天，不敢沒脚於蔑法之場，終歸於彰善懲惡之一關捩也，則不可以其荒誕，而都歸於不緊之科者也。設爲修善之方，而必有善果之應，設爲懲惡之跡，而必有玷厄之報，見之者，瞿然有改過之意，讀之者，油然有潔行之志，由此觀之，稗官之功，亦可微哉？何以明其然也？陳壽作志，而忠臣忘軀，水滸成傳，而義士奮身，西游之記出，而怪鬼戢其妖術，屏梅之書作，而悍婦懲其妬心，演楚漢之義，而英雄知曆數之有歸，倡剪燈之話，而蕩子知風流之有節。太史公所謂‘談言微滸，亦可以解紛’者，抑亦爲稗官而說歟！大抵，六藝之文，五經之語，汪洋放滸，嶄截峻拔，浩浩乎不可尙已，譬之知菽粟之飯。日用而不知味者也，至於稗官之說，則千奇萬怪，華采彬蔚，機鋒織利，譬之知爽口之差，娛腸之饌，備諸珍味，味濃脛腴者，不可常御，而時時間進也，固不可退韶護而就鄭衛也，亦不可重吾礪而輕荊璞也。 국도본 <옥선몽>하 25~26쪽.

28) 雖然，心不正則言不實，言不實則事不信。 국도본 <옥선몽>하 32쪽.

心)을 갖추면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말이 된다고 했다.<sup>29)</sup> 이처럼 작가는 권선징악을 통한 감계나 바른 마음을 중시하면서도 허구적 서사를 읽는 재미를 인정하고 진실하고 근거가 있어서 믿을 만한 말을 허황된 이야기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탕옹의 소설관이 두채릉의 죽음을 다루는 과정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도본 <옥선몽>에 남아있는 평비(評批)에서 이러한 탕옹의 시도가 독자에게 어떻게 읽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전몽옥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각이 명기되는 부분이나 검시를 통해 자결의 증거가 묘사되는 부분이 나중에 전몽옥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복선임을 짚어내고, 수사 과정에서 금옥과 의동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자신의 주인을 위한 행동이라 해석했다.<sup>30)</sup> 독자가 각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여러 단서들을 맞춰가면서 전몽옥에서 덧씌워진 의심을 풀어가는, 추리의 독서를 하고 있다. 악한 인물이 처절한 징벌을 받으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말고도 서사에 숨겨진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는 지적 활동이 읽는 즐거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옥선몽>이 구현하는 의옥 서사는 기존의 기법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소설 장르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당대의 지적 취향을 섭렵한 탕옹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범죄

29) 故心不失正，則齒之所啓，舌之所掉，莫不規圓而規方，繩直而準平。至於文詞記實之言，自合於撫範而不忒。譬如平坦之路，無橫奔之馬，挺拔之木，無屈曲之枝，一言而爲天下之正法，一言而爲百代之正論。凡於聽聞之際，無猶豫狐疑之端，亦於論議之間，無賸鼎僞玉之譏，秩秩然其言有根，亶亶然其文可信。 국도본 <옥선몽>하 36쪽.

30) 국도본 <옥선몽>의 평비에 대한 논의는 서경희, 『<옥선몽>의 이본 생산 방식과 독서 전략-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주석과 평비 기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210~217쪽 참조.

사건이 선정적인 볼거리가 되고 사건에 대한 추리 과정이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눈으로 복기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용인되었다. 인물의 비일상적 죽음은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인물의 행위도 권선징악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문제적 죽음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실천성이 동반된 현실 인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sup>31)</sup> 그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현실의 제도에 의해 처결되는 개인이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파악하는 정황, 입장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비일상적 죽음을 다루는 서사가 궁극적으로 교훈과 감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흥미와 분석을 위한 독서로, 즉 읽는 재미 자체를 위한 것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서 과정에서 공동체의 윤리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배치된 단서들을 찾아 사건을 추리하는 독자 개인적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선몽>이 폭넓은 지적 정보와 서식의 시각적 재현 등을 통해 개인 독서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동반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소설 작법상의 유의미한 변화로 1910년대 이후 추리소설의 번안이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두채룡의 죽음으로 촉발되는 의욕 서사의 의의는 이러한 지점에서 확보할 수 있다.

31) 이러한 면은 <옥선몽>이 포괄하고 있는 수많은 지적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뿐 의미화를 피하지 못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를 작가의 한계로 볼 수도 있으나 소설 작가가 실천적이거나 윤리적 당위, 주제 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상의 노출과 재현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소양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서사 내에 추리할 단서를 숨기고 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玉仙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乾·坤.
- <李雲仙傳> 단국대 올곡도서관 소장 34장본.
- <정슈경전> 단국대 올곡도서관 소장 54장본.
- <징세비태록> 『낙성비룡 문장풍류삼대록 징세비태록』, 임치균 외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29~388쪽.
-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휴머니스트, 2018, 1~399쪽.
-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1~282쪽.
- 박소현, 『법률과 사실, 그리고 서사-법문학비평의 관점에서 본 전근대 동아시아의 범죄소설』, 『中國文學』 98, 한국중국어문학회, 2019, 1~21쪽.
- 박여범, 『송사소설의 전개 유형과 현실인식』, 전북대 박사논문, 2001, 1~181쪽.
-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1~202쪽.
- 서경희, 『<옥선몽>의 이본 생산 방식과 독서 전략-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주석과 평비 기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193~227쪽.
- 야로슬라브 프루섹, 『이야기, 小說, Novel』, 김진곤 편역, 예문서원, 2001, 1~413쪽.
-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1~296쪽.
- 왕여, 최치운 외 주석, 『신주무원록』, 김호 옮김, 사계절, 2003, 1~565쪽.
- 이헌홍,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1~454쪽.
- 전성운, 『19세기 장편 한문소설과 청말 재학소설의 지식 제시 방식』,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395~412쪽.
- 정규웅,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15, 1~95쪽.
- 조형래, 『‘소설(小說)’의 사실, 법률과 재판: <와사옥안>과 이해조의 <구마검>·<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41~67쪽.

ABSTRACT

The Narrative of Suspicious Crime and the Technique of Reasoning  
— Focused on *Okseongmong*

Seo, Kyung-he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ase and the ways of shaping themes centering on the suspicious crime narrative of *Okseongmong*. In *Okseongmong*'s crime story, it was important to shape the resolution of the case itself. Criminal evidence was placed throughout the story to make reasoning possible. And repeated statements by different figures tolerate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of the case and solve the case according to institutional procedures, without involving ethical judgment.

This characteristic of the criminal narrative corresponds to the autho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reading fun and reliable stories. Individual experience in the criminal narrative is strictly limited to personal events and does not extend to community problems. This is in line with the turning of the reading process into a reader's personal activity of inferring events based on evidence. Such a significant change in the writing of novels became the basis for the translation and creation of crime novels in earnest since the 1910s.

**Key Words** *Okseongmong*, crime, reasoning, an individual, reading method

논문투고일 : 2019.07.16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